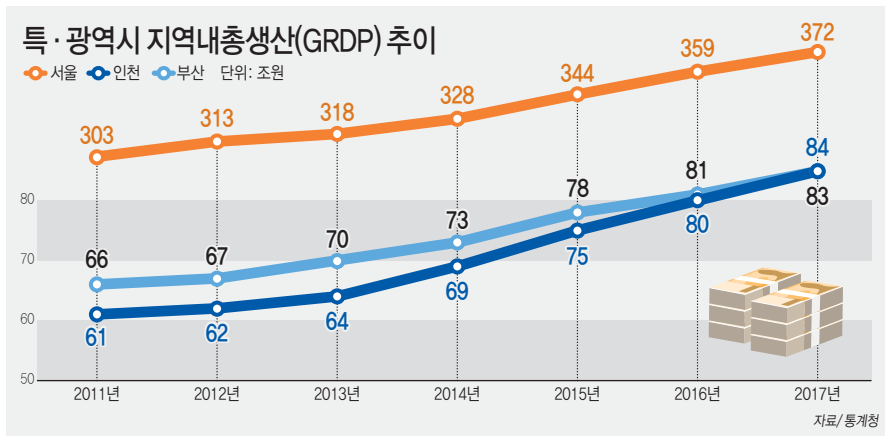
인천시 경제력 부산 제쳤다… GRDP 전국 2위

〈지역내총생산〉

약 84조590억… 성장동력으로 부상
특·광역시에서 경제성장률 제일 높아



인천시가 역대 최고의 GRDP(지역내총생산)를 기록하며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에 오르는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7일 통계청의 '2017년 지역소득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GRDP는 약 84조590억원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서울(372조1100억원) 다음으로 높다. 3위는 부산(83조2990억원)이 그 뒤는 울산, 대구가 이었다.

인천의 GRDP는 지속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이에 따라 특·광역시 중 순위도 2011년~2013년 4위, 2014년~2016년 3위에서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통계에서는 2위로 올라섰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 4.0%를 기록했다. 전국으로 봐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경기도(5.9%)와 제주도(4.9%)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순위에 해당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 측면에서도 단연 수위(首位)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 동향'에 따르면 인천시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액은 지난해 48억달러로 2016년 8억달러, 2017년 9억달러에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착액이 집계된 서울(72억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실적이 높았다.

인천의 일자리 지표 또한 청신호다. 2018년 11월 기준,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8%로 전년 동기 64.4%보다도 개선됐으며, 고용률도 63.3%로 서울, 부산을 제치고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특·광역시 1위를 수성했으며, 지난해 전국 청년고용률 평균이 42.7%, 7대 도시 평균은 41.2%인 가운데 인천은 47.9%를 달성하며 지난해 7대 도시 중 1위를 수성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우리 지역의 GRDP는 제조업과 운수업이 각 25.5%, 11.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인천에는 1,915만㎡에 11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경제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 뿐 아니라 인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중소 제조기업 1만개 이상이 뿌리내리고 있다. 인천은 스마트공장 보급·산단 고도화 등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바이오·로봇 등 4차산업을 성장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업 분야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파고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특·광역시 유일 6년 연속 수출성장세를 유지해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408억 달러를 달성하며 GRDP 성장을 이끌었다. 오는 4월 크루즈터미널 개장, 인천 신항과 국제공항 개발에 따라 운수업 성장에도 터보엔진이 켜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박남춘 시장은 최근 신년 강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시정부의 핵심 목표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글로벌 물류 플랫폼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박 시장은 "외형 성장 뿐 아니라 우리 인천의 속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제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지표를 수립·개선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내실있는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며 "원도심 재생, 건강·안전관리지수, 생활만족도 등 시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신세계 센텀시티 'VR런' 새단장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는 최근 백화점 4층에 조성된 VR체험존 'VR런'의 새단장을 마무리하고 재개장했다고 7일 밝혔다.VR런에서는 광선검으로 즐기는 VR리듬게임을 비롯해 우주 바이크 레이싱과 롤러코스터, 우주탐험 등 1인칭 게임과 함께 2~4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까지 다양한 VR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신세계 센텀시티

전남도, 1159억 투입… 노인일자리 4만개 제공

소득 공백 메우기 힘써… 이달 본격화
사회서비스형 신설 등 노후 안정 집중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총 1159억 원을 들여 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겨울철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내활동에 한해 조기 실시하고,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2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일자리 수는 지난해(3만3000개)보다 7000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월 30시간,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신설돼 월 60~66시간, 10~11개월 운영된다. 주휴수당 포함 최대 73만 원까지 지급하므로 참여 어르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 아동시설지원 및 장애인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시설지원 등이다.

전라남도는 또 도 자체사업비를 들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신규 시장형사업에 초기투자비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버카페, 역사문화콘텐츠 연계 사업 등의 전남형 노인일자리 200개를 추가로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이외에도 메주 만들기, 통발 제작, 농산물 공동생산, 손뜨개 등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확대한다. 경로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일거리를 통한 소득 창출과 효율적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박환주 전라남도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사업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많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혹한기 활동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참여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의는 각 시군(읍면동 포함)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나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

부산시, 미래형 친환경 '수소차' 보급 본격화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수소차 보급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구매보조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200만원)이다. 수소차 구매가 6890~7220만원(현대 넥소 기준)에 비춰 약 50%가량을 지원받는 셈이다.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수소차 구매신청 전날까지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가능 차량대수는 개인 및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 모두 1대로 제한한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경남, 75억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신청접수

농가별 득점 순으로 사업 대상자 확정

경남도가 올해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산분야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사업을 지원한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현대화된 축사시설에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가축 사양관리 등에 ICT 장비를 적용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농가이며, 농가당 신청 사업비는 최대 15억원으로 재원은 국비보조 30%, 국비융자 50%, 자부담 20%로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지원 형태는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며, 일반형은 환경 관리기, CCTV 등 단일 장비만 도입해 단순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문형은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해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 등 활용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외부환경(온도, 습도, CO2, 풍속, 풍향, 악취 등)과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악취 등)의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 사양관리를 위한 사육단계별 사료 자동 급이기, 선별기, 사료 빈(bin) 관리기, 돈방별 음수 관리기, 자동 포유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축사 모니터링·분석·제어와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도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농가는 축사에 통신장비와 환경 관리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스마트폰과 PC로 축사시설물의 원격·자동제어를 통해 과학적인 사료관리와 음수급이, 환경 관리로 사료비 절감 등 생산성을 향상시켜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최인락 기자

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인천시는 자발적인 안전점검 추진이 어려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점점검을 오는 2월부터 전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 시내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83퍼센트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 아파트이나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경과년수를 조정하거나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사업대상 확대도 가능하다.

점검방법은 위탁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전문기술자가 전문장비를 갖추고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분야 안전관리계획 및 건축물 중대 결함 및 유지관리·보수 방법 등을 제시한다.

/인천=최영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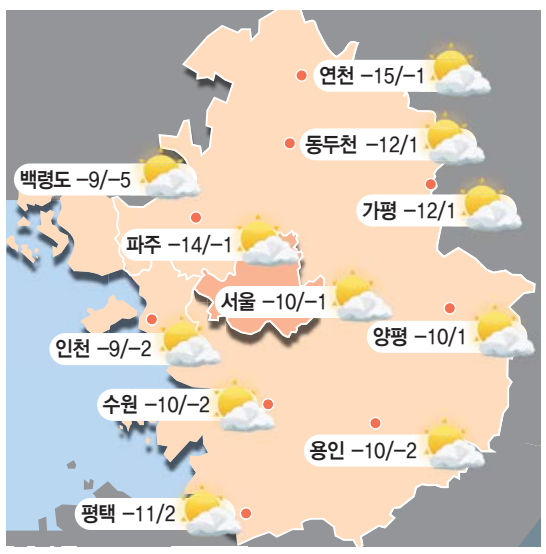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30 | 해짐 / 18:03

2월
8일 (金)
음력 : 1월 4일

수도권 날씨
-10~-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